YOUTH ACTION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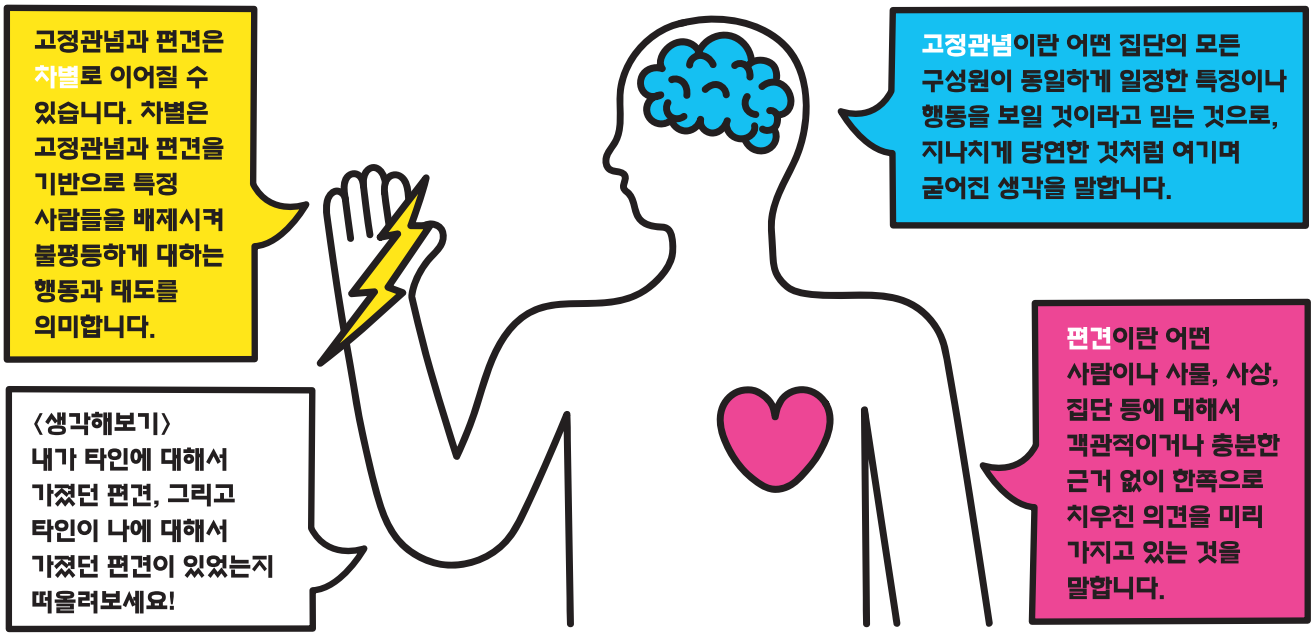
혐오에 맞서는 유스를 위한
액션 툴킷!

본 액션 툴킷은 누군가에 대한 혐오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유스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무해하고 재치 있게 혐오표현을 맞받아치는 '대항표현'을 만들어봄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된 유쾌한 인권 감수성을 키워보세요. 혐오를 맞받아치고 싶은 유스라면 누구나 본 툴킷을 통해 스스로 혐오와 차별,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특히 동아리, 모임, 공동체 혹은 수업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혐오표현'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사용합니다. 앰네스티는 예시에 사용된 발언을 지지하거나 해당 내용에 공감하지 않으며, 사용된 예시는 앰네스티의 의도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혐오에 대항하는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예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혐오표현, 과연 뭘까요?

혐오표현은 인종, 나이, 성, 장애, 종교, 출신 지역 등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비하, 모욕, 멸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자 이들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며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대상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한 사람의 의도가 담겨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의도와 상관 없이 혐오표현이 될 수 있어요.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정체성을 무시하는 차별과 배제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혐오표현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큽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이 행동이나 태도로 표출되면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차별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혐오는 차별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부추기면서 혐오를 받는 대상,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존의 차별을 강화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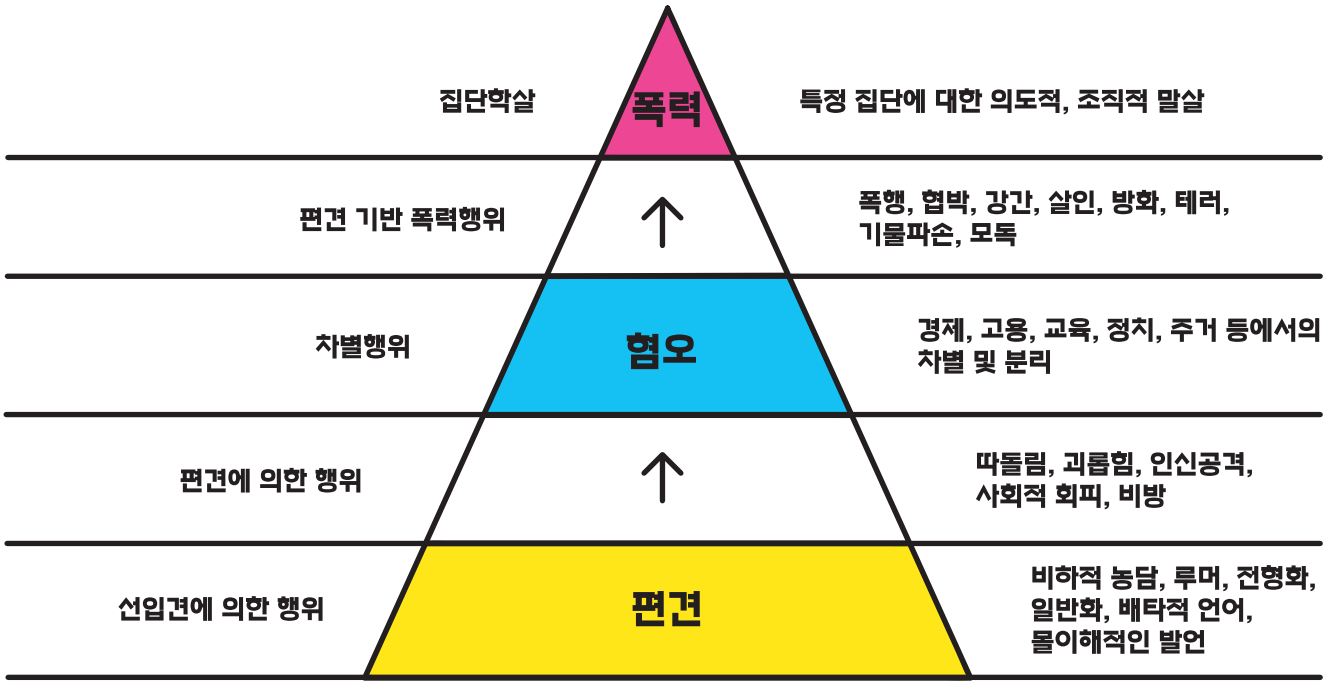
혐오표현은 단순히 말 자체의 뜻만으로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 안에서 쓰인 표현인지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고 차별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쓰인다면 혐오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인원이 많지만 정치적, 사회적인 권력이 약한 집단이나, 실제 인원이 적은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수자들은 사회 안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사회의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곤 합니다. 예) 이주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무관심을 먹고 자라는 혐오, 그냥 자라나게 놔두면?

누구나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오문화가 커지도록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그 대상은 더욱 확대되고, 그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겪게 되는 피해는 더 커집니다.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혐오범죄가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가 무력화 되면서 민주주의, 다양성 존중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집단 간의 분쟁이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며,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혐오의 피라미드



〈생각해보기〉

내가 경험한 혐오는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요?
또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들 중 87.3%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혐오표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만드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직접 접하게 되면 반대의사 표현(41.9%) 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79.9%), 혐오표현 사용자나 발생장소를 피하는(73.4%) 등 주로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혐오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혐오에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이에요"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을 대항표현이라고 합니다. 혐오표현을 반박하고 약화시키는 맞받아치기를 의미해요. 또한,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이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퍼트리려 하는 메시지를 긍정적인 버전으로 바꾸어 이를 널리 알리는 것까지 포함돼요. 어떠한 의견에 반대하기 보다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즉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세세한 혐오표현까지 모두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어요.

"혐오표현의 의미를 뒤집거나 혐오발화자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 철학자

대항표현, 어떻게 만들까?

- 캐서린 겔버가 제시한 세 가지 방식 (Katherine Gelber 정치학자)

혐오표현에 담긴 허위사실 반박하기

혐오를 확산시키는 자극적인 내용의 가짜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이를 반박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오표현: "난민들은 돈 벌러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일자리만 뺏는 거지!"
대항표현: "난민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말이 많이 퍼져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종류의 일자리와는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혐오표현이 위협하는 가치 옹호하기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에 노출된 사람들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이 무시받고 위협받지 않도록, 그래서 각자의 존엄성과 사회의 다양성 등을 지켜가며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혐오표현: "저 농구선수 흑형 쩔었다", "짱개들은 시끄러워", "게이 똥꼬충", "얼굴에 분칠(화장)한 것들이 무슨 일을 해", "큰 일은 남자가", "홍어 빨갱이들"
대항표현: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인종혐오적 표현을 하는 건, 그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일이야. 다양성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서는 누구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혐오표현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기

때로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솔깃해서 잊어버리고 덮어두었던 따뜻한 인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두드려 일깨워보아요.

혐오표현: "피해자 맞아? 울지도 않고 당당한 게 피해자 같지가 않아."
대항표현: "어떤 사건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은 가해자의 편을 드는 거고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야. 넌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해서 단순히 '당신이 틀렸다' 는 대응만으로는 당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심리적으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거나 많이 다른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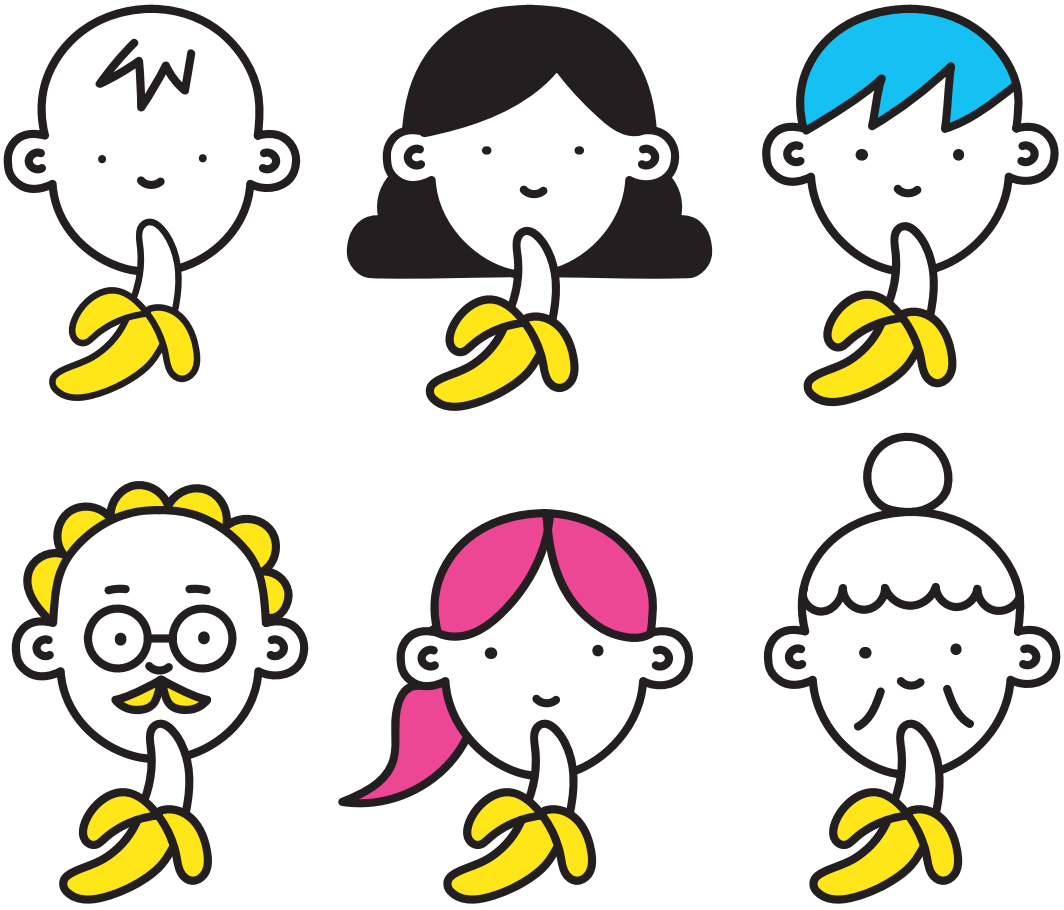
“대항표현은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캐시 버거 Cathy Burger 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자

혐오에 대항하는 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온라인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보러가기

혐오에 맞서는 우리들의 대항표현

“우리 모두가 원숭이 WE ARE ALL MONKEYS 캠페인”



유럽 축구경기에서 일부 관객들이 유색인종 선수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인종혐오적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혐오문화에 대해서 네이마르(Neymar), 다니엘 알베스(Daniel Alves)등 유명 축구선수들은 바나나를 먹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대항했습니다. 자신들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만들었고 미디어에 많이 보도되면서 규모가 커졌어요. 이런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혐오문화가 있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을 한 당사자를 직접 비난하고 겨냥하는 대신 인종차별 피해를 겪은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피클을 만져라! Touch the Pickle 캠페인”

인도에서는 여성의 생리를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중인 여성의 손으로는 웬만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금기의 문화 때문에 피클이 들어있는 항아리 같은 통 마저도 못 만졌다고 해요. 이러한 뿌리깊은 편견에 기반한 여성혐오 문화에 대항하는 내용을 담아 한 생리대 회사에서 광고를 통해 Touch the Pickle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피클을 만지자! 진짜 불결한건 생리 중인 여성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이야!”

위스퍼
Touch the Pickle
캠페인 보러가기

“서울대 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반창고 캠페인 ”

2016년 3월, 서울대 성소수자 동아리 ‘큐이즈’에서는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관악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어느 날 새벽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동아리 ‘큐이즈’에서는 새로운 현수막이 아닌 찢어진 현수막을 그대로 걸었어요. 그러면서 “반창고로 현수막을 복원해 달라” 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 날 오후엔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현수막이 본래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찢어진 현수막으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존재함을 보여주면서, 반창고를 붙이는 캠페인을 통해 혐오에 맞서고 성소수자와 연대하겠다는 대항의 메시지를 알리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대항표현! 누구든,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대항표현은 개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연대를 조직하여 보다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청원이나 집회를 기획하거나 참여하기, 칼럼 기고, 반론보도 요청, 성명서 쓰기, 리플렛 만들고 공유하기 등 다양한 형식들이 모두 대항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형식으로든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거부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존의 혐오표현의 의미를 뒤집는 표현이라면, 모두 대항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세계를 억압하기도 하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린 티렐 Lynn Tirell 페미니스트 언어철학자

혐오에 대항하는 유스를 만나고 싶다면!
앰네스티 '진짜 요즘 애들이 혐오를 맞받아치는 법'
숏다큐 보러가기

인용 및 참고 문헌

〉 혐오표현 리포트(2020),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2019), 국가인권위원회
〉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인권단체 Article19 '혐오표현' 해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유민석 혐오표현 연구자, 월간참여사회(2019. 12. 30)
〉 혐오표현은 선동, 대항표현이 떠오른다, 박성빈 기자, 이로운넷(2021. 2. 26)
〉 교실 멍드는 혐오발언을 멈추려면, 팀 보라이어티, 카카오임팩트 100up
〉 사단법인 오픈넷X진보네트워크센터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2021. 2. 24)

ACTION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만들기

1. 우리 주변의 오래되고 익숙한 혐오표현을 비틀어보자!

아래의 혐오표현이 들어간 단어, 시대착오적인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오른편에 대항표현과 연결시켜봅시다.

벙어리 장갑
결정 장애
장애우
정상인
살색
요린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는 일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

비장애인
누구든 울고 싶은 만큼 울어도 된다
요리가 서툴다
엄지 장갑, 손모아 장갑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한다
장애인
결정이 힘들다, 우유부단하다
살구색

2. 내가 직접 들었거나 사용했던 혐오표현을 적은 후, 비틀어서 대항표현으로 바꿔보자!

만약 비틀지 못하는 혐오표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해봅시다.
※ 대항표현을 만들기 어렵다면 '혐오에 맞서는 우리들의 대항표현'(p.4)과 앰네스티 여성폭력추방캠페인을 참고해주세요!

예시)
나 완전 결정장애야 -> 나 완전 결정을 잘 못해, 나 결정할 때 시간이 좀 걸려
얼굴은 이렇게 예쁜데 성격도 좀 사근사근하면 얼마나 좋아? -> 누가 좋습니까?
예쁜 공주님이 왜 힘들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 이럴 때 돈으로 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3. 대항표현은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혐오표현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대항표현을 생각하고 다짐해봐요!

예시)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 웃지 않기, 정색하고 노잼이라고 말하기
직접 만든 대항표현 일상에서 사용하기, SNS 공유하기
지인들과 혐오대항 액션 툴킷 함께 해보기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혐오표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혐오에 대항하는 한 걸음, 함께 시작해요!

내가 직접 만든 대항표현을 일상에서 사용해보고, 아래 해시태그를 포함해 SNS에 공유해요!
#혐오대항 #유스액션 #AgainstHATE #youthaction